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29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해양항공과	담당자	·해양기획팀장 서미숙 ☎440-4821 ·담당자 박향은 ☎440-482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 항공 · 섬 기반, 초일류도시 성장엔진에 윤활유를

- 백령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방향 구체화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
- 서해5도 특별지원 및 천혜 자원과 연계하여 섬 관광 활성화 -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구축 및 어촌 신활력 증진으로 부가가치 창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달성을 위한 해양항공분야 2023년 업무보고를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양항공분야에서는 코로나와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해양도시 저력 강화와 도심항공교통 및 물류산업 선도, 그리고 섬 ·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도권 대표 해양 인프라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해양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타 통과, 대한항공 통합 엔진정비센터, 미국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센터 유치 협약체결 및 “2022 K-UAM Confex” 개최를 통하여 인천이 주도하는 도심항공교통 국제협력체(GURS) 구축 공식화와 공동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 생활물류산업의 고속 성장에 합류·주도하기 위하여 “V2V 기반 공유물류망 구축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국토부 선정, ‘22.3.) 사업”을 추진하고, 19년만의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물류시장을 조성하였으며,

섬·어촌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발굴 및 섬지역 해상교통의 도심 대중교통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해양·항공·섬 기반 대한민국 성장엔진 인천 구현’을 목표로 ❶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로 초일류도시 인천 도약 ❷ 인천형 항공우주산업 육성 ❸ 디지털·스마트 물류산업 혁신성장 지원 ❹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섬 조성 ❺ 청정 인천 해양환경 보전·관리 ❻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❼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을 7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살펴 보면 먼저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로 초일류도시 인천 도약’을 위하여 ▲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 ▲ 글로벌 해양도시 인프라 구축 및 해양산업 육성 ▲ 인천항 경쟁력 강화 등 크루즈,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두 번째 ‘인천형 항공우주산업 육성’으로 ▲ 인천공항경제권 구축 ▲ 항공정비 기업 유치 ▲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플랫폼 구축 ▲

백령공항 건설 추진 등 인천형 도심항공교통 도입 및 백령공항과 주변지역 개발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디지털·스마트 물류산업 혁신성장 지원’은 ▲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 등 물류산업 선진화와 종사자 복지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 확대할 예정이며,

네 번째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섬 조성’을 위해 ▲ 섬주민 정주환경 및 경제활동 기반 확충 ▲ 해상교통(여객선) 이용편의 증진 ▲ 지역자원 활용 섬 관광 활성화 등 서해5도 특별지원과 섬 관광 활성화로 섬의 유동인구 및 정주민구 증가를 꾀하고,

다섯 번째 ‘청정 인천 해양환경 보전·관리’로 ▲ 청정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리 ▲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 ▲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구축 등 해양·섬·갯벌 등 우수한 해양자원의 관리와 보전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으로 바다와 시민이 건강한 인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은 ▲ 해양친수도 시 조성사업 추진 ▲ 연안정비사업 추진 ▲ 해안가 군경계 철책 철거로 친수공간 조성을 극대화 하여 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계획이다,

끝으로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은 ▲ 어촌·어항 신활력 증진

▲ 연근해어업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 ▲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섬·어촌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는 바다와 해양, 해안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돼 해양정책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제는 인천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중앙 중심이 아닌 인천 중심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우리 시 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역과 같이 어민·수산분야에 한정적인 것이 아닌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고 연계 되어가는 과정에서 섬지역 소득증대, 생활편의 증진, 미래경쟁력 확보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해양항공국)

목표

해양·항공·섬 기반 대한민국 성장엔진 인천 구현



【전략 1】

-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로
초일류도시 인천 도약

- ①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 (핵심)
- ② 글로벌 해양도시 인프라 구축 및 해양산업 육성 (핵심)
- ③ 인천항 경쟁력 강화 (혁신)(공약)

【전략 2】

- 인천형 항공우주산업 육성

- ① 인천공항경제권 구축 (핵심)(혁신)
- ② 항공정비 기업 유치 (핵심)(공약)
- ③ UAM 실증 플랫폼 구축 (주요)(공약)
- ④ 백령공항 건설 추진 (핵심)(공약)

【전략 3】

- 디지털·스마트 기반의
물류산업 혁신성장 지원

- ①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핵심)(신규)
- ②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핵심)(공약)
- ③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 (협업)

【전략 4】

-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섬 조성

- ① 섬주민 정주환경 및 경제활동 기반 확충 (핵심)(공약)
- ② 해상교통(여객선) 이용편의 증진 (핵심)
- ③ 지역자원 활용 섬 관광 활성화 (핵심)(공약)

【전략 5】

- 청정 인천 해양환경
보전 · 관리

- ① 청정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리 (주요)
- ②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 (핵심)(공약)
- ③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구축 (주요)

【전략 6】

-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 ①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 (주요)
- ② 연안정비사업 추진 (주요)
- ③ 해안가 군경계 철책 철거 (일반)

【전략 7】

-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

- ① 어촌·어항 신활력 증진 (핵심)
- ② 연근해어업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주요)
- ③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 (협업)
- ④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